

2014 학술·문화재 결산

불교문화의 새로운 가치 확인한 1년

[학술] 근현대 선지식 연구 '활발', 기초연구 성과물 '눈길'

2014년은 근현대 고승 연구의 기념비적인 해로 꼽힐 정도로 불교의 근현대사에 대한 조망작업이 활발히 이뤄졌으며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서비스 개시를 비롯해, 각종 사전 등을 비롯한 기초연구 분야의 성과물이 대거 선보였다.

먼저 신년을 맞아 1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이 개최한 원측 스님 탄신 1400주년 기념 콜로키움을 시작으로 11월 불교학연구회와 불교문화연구원의 '원효 사상과 동아시아 불교' 학술대회까지 다양한 인물들에 대한 조망이 이뤄졌다.

특히 석전, 한암, 용성, 월하, 자운, 무진장 스님 등 근현대 불교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스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재조명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노천문도회가 3월 월하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해암선사문화진흥회가 4월 해암 스님의 사상을 조명하는 첫 학술대회를, 한국불교학회가 같은달 석전 스님과 한암 스님 사상을 밝히는 기념세미나를, 정도회회가 5월 용성 스님 탄신 15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열고 그동안 연구해왔던 다양한 자료를 공개했다. 만해죽전 기간동안에는 만해사상실천선양회와 만해학회 등에서 만해 열반 70주기를 맞아 심우장 시절 등을 조명했다. 이와 함께 보조사상연구원은 16국사들에 대한 재조명 작업을

을 꾸준히 펼쳤다.

근현대 고승들의 업적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설립도 이어졌다. 10월 무진장 스님의 포교사상을 선양하는 무진장불교문화원이, 11월 자운 율사 스님의 계율 정신을 펼치는 자운계율사상연구원이 창립됐다.

역경 분야에서는 불교기록유산 아카이브 서비스 개시를 시작으로 사전 편찬과 선학 연구 성과물이 줄이어 나왔다. 먼저 동

용성·만해 등 근현대 고승 조망 <한영불교대사전> 등 기초학문 성과 동국대, 해외대학과 교류 가속화

국대 불교학술원 ABC사업단은 6월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서비스로 인해 그동안의 디지털화 된 불교기록유산은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대형 사전류도 편찬됐다. 찰스플러 도쿄대 교수와 전옥배 한국불교번역연구원장이 편찬한 <한영불교대사전>은 7년의 작업기간 동안 불교의 주요 표제어 1만 2000여 개를 담아 화제가 됐다. 동국대 교수 해일 스님과 데이비드 메이슨 남서

대 교수가 편찬한 <An Encyclopedia of Korean Buddhism>은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한 백과사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해인총림 울주 중진 스님의 <원전회편 선문염송집(原典會編 禪門拈頌集)>과 천안 평심사 정원 스님의 <태화선학대사전(泰華禪學大辭典)>도 선학 연구의 밑바탕이 될 전망이다. 전채성 박사 또한 5월 빨리울장을 처음으로 완전 번역해냈다.

불교 학술교류의 세계화도 더욱 활발히 진행됐다. 동국대는 5월 제1회 동아시아 4개대학 불교학 국제학술회의를 열고 2013년 정례회를 약속한 동국대, 중국 베이징대, 일본 도쿄대, 대만 타이완대와 불교학연구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모았다.

반면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어졌다. 먼저 서명원 신부가 1월 초 <가야산 호랑이의 체취를 맡았다>를 통해 성철 스님의 돈오돈수 주장이 군부정권과의 구조와 닮아있다는 주장을 해 격한 논쟁이 벌어졌다.

지난해 발생한 동국대 불교학술원 행정파행이 그대로 소송으로 이어졌으며 국내 학문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한국연구재단이 종교분야 책임전문위원을 선정하며 불교학 분야를 배제해 불교학계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2월에는 국내 계율학과 재가불교의 기틀을 다진 목정배 교수가 별세해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함께 일본에서는 희귀한 고려불화가 연이어 공개됐는데, 이는 고려불화에 대한 대중들의 안목이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 중국불화 등으로 여겼던 가치를 알게된 요인이 크다 이는 분석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불교문화재가 대거 근대문화재로 등록되기도 했다. 9월 문화재청은 '양산 통도사 자장암 마애아미타여래상' 등 불교 유물 21건을 문화재 등록했다.

그동안 불교계 안팎에서는 미래의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는 근대문화재 지정에 대해서도 불교계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올해는 전통사찰 7곳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 해이기도 하다. 8월 전통사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위가 발족한데 이어 12월 첫 학술대회를 열기도 했다.

대한제국 국새 반환을 성공리에 이끌고, 일본 오후라 콜렉션 환수를 위해 동분서주한 혜문 스님의 행보나, 문화재 지킴이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대한불교청년회의 활동도 많은 호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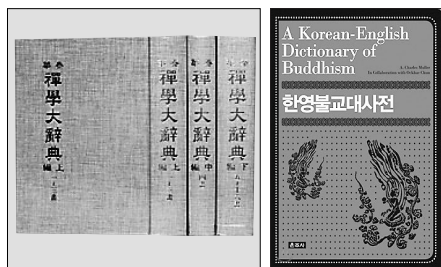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동국대 불교기록유산 아카이브 검색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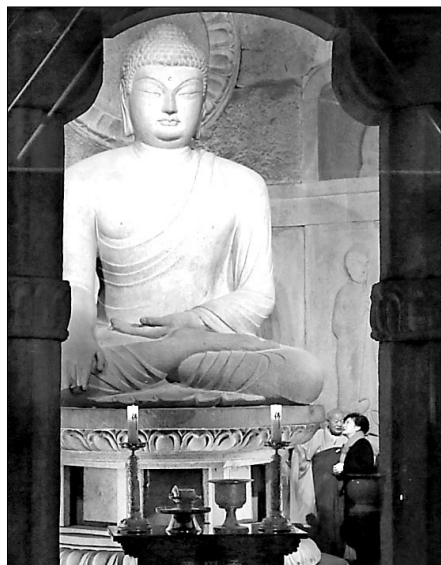
제1회 동아시아 4개대학 불교학대회 모습



<선학대사전>과 <한영불교대사전> 표지



용성 스님 탄신 15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백근해 대통령의 석굴암 점점



조계종의 도안 성보 회수 모습

부석사 관세음보살 국민청원운동 전개

부석사불상제자리복안위, 1월 7일 서산시청에서 개최

부석사 관세음보살을 본래 자리인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한 국민청원운동이 전개된다.

서산 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복안위원회(이하 봉안위)는 1월 7일 오후 2시 충남 서산시청에서 국민청원운동발대식을 개최한다.

국민청원운동은 총 650만 명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원운동 내용은 '일본 관음사가 정당하게 취득했다고 밝히기 전에는 일본으로의 점유이전을 금지한다'는 2013년 2월 대전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토대로 일본이 정당하게 소장했다는 경위를 밝히기 전에는 어떠한 '환부還付' 조치에도 반대한다는 뜻이 담겼다.

더 나아가 대마도와 일본 내 한국 문화재에 대한 국제기구와의 공동조사 촉구

내용도 담겼다.

봉안위 측은 "11월 30일 한일문화부차관회담에서는 일본 측의 불상 반환요구에 김중덕 장관이 일본에 있는 6만7천여 점의 우리 문화재의 반환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하는 등 한일협정 50주년을 앞두고 '문화재반환' 문제가 뜨거운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불법반출 문화재에 초점을 맞춘 환수운동의 범위를 13세기 왜구와 15세기 임진왜란 당시의 약탈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청원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이상근 CAIRA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는 "원소유자의 소유권은 항구적이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석사 관세음보살'은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청송 보광사 극락전' 보물로 지정

문화재청은 경북 청송 보광사 극락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840호로 지정했다.

보광사 극락전은 상량문에 의하면 만력 43년(萬曆43年, 1615)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극락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맞배지붕 형식의 건축물이며, 특징적인 것은 측면 박공 부분에 설치된 현어다.

조선 중·후기의 현어는 앞뒤 박공편이 만나는 부분에 꺾쇠로 연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당굴 무늬의 현어를 목재로 사용한 것은 보기 드문 예다.

'청송 보광사 극락전'은 불전 건축의 구조 양식과 공포 구성에서 기존에 보물로 지정·보존하고 있는 청정도 대비사 대



전(보물 제834호, 17세기) △청송 대전사 보광전(보물 제1570호, 1672년) △경산 환성사 대웅전(보물 제562호, 1635년) △청도 대적사 극락전(보물 제836호, 1635년) 등 17세기 불전 건축에서 채택된 건축수법과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 불교의례 및 의식 재정립 원년

문화재와 관련해 2014년은 의미있는 한 해로 평가할 수 있다. 승례문 부실공사 파문을 시작으로 석굴암·대장경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으며, 그로 인해 문화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됐다. 불교계에서는 성보에 대한 소중함이 더욱 부각돼 도난백서 발간, 모니터링 강화, 불교청년단체들의 문화재지킴이 활동들이 이어졌다. 부석사 불상 반환문제가 지속적인 이슈가 되며 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졌다.

문화재청의 특별 점검에서는 성보문화재 보존이 총체적인 부실하다는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기도 했다. 전국 7393점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긴급조치가 필요한 보물 이상급 문화재 중 불교문화재가 80%가 넘는 것으로 조사돼 당국이 비상에 걸리기도 했다.

불교문화재로는 그동안 관심받지 못했던 다비, 불복장 등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대폭 높아졌다. 2월 불교다비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발간됐으며, 전통불복장보

존회가 4월 설립되고 7월 첫 시연, 11월 학술대회를 열었다.

5월에는 서울의 한 경매장에서 도난 불교문화재가 대거 발견되기도 했다. 수사결과 총 48점이 회수됐으며 이를 계기로 조계종과 문화재청, 경찰청은 문화재 도난에

문화재 관리 총체적 부실 드러나 성보 대거 근대 문화재로 등록

전통통사찰 유네스코 등재 추진

방 협약을 맺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계종은 특히 도난백서를 새로이 발간하기로 했다.

새롭게 발견된 문화재도 대거 선보였다. 5월에는 동국대 박물관이 수장고 정리 과정에서 국내 최고(古)인 청동바라를 발견해 공개한데 이어 8월에는 국보급 금강령 등이 도봉서원 터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이와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는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수면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

도무지 잠이 안와!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폭자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해!

휴 ≈ 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이라 쾌면, 숙면, 꿀잠
-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 ◆목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할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 ◆침대에 쓰러지면 뒤에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 ◆베개 높이 인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배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빠근 바른 베개 치유
-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골장(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산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범왕정사.net

010.3487.0035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사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신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교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어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천법음대 졸업, 중앙승가대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악가운솔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 (소장: 처명)